

風水에 대한 地理學的 解釋

— 陽基風水를 中心으로 —

崔 昌 祚
朴 英 漢

〈目 的〉

- | | |
|----------------------|-------------------------|
| 1. 問題提起 | 4. 聚落地論의 立場에서 본 風水의 實例. |
| (1) 研究目的 | (1) 近代地理學과 風水의 差異點 |
| (2) 研究範圍 | (2) 國域風水의 例 |
| 2. 風水의 解釋上 問題點과 史的背景 | (3) 國都風水의 例 |
| (1) 風水의 非科學性에 대한 論議 | (4) 住宅과 陰宅의 例 |
| (2) 韓國風水의 歷史的 背景 | 5. 要約 및 結言 |
| 3. 風水의 術語의 地理學的 解釋 | |

1. 問題提起

(1) 研究目的

現代地理學이 추구하는 基本的인 目標은 地域의 空間類型과 地域分화를 究明함으로써¹⁾ 地域의 空間秩序를 찾아내는데 있다.

地域이 空間類型的 相異性を 露示하는 理由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自然的要因과 人文的 要因을 들 수 있으며 그에 相應하는 人文地理學과 自然地理學이 大別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어떤 地域에 있어서 特異하게 노출되는 그 地域의 空間類型은 一次的으로 그곳을 있게 만드는 自然環境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人間에 占有된 후에 있어서는 그곳에 居住하며 生活을 營爲해 온 사람들에 의하여 地域秩序가 成立된다.

그 地域을 占有하여 生活을 營爲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生活維持와 發達을 위해 必要하다고 생각하며 얻는 生活理想 즉 思想이나 信仰에 基礎를 둔 文化를 形成하게 되며 그 文化는 다시 地域秩序에 影響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相互關聯性 있는 影響을 받게된 地域

은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個別地域마다의 地域特性을 가지게 되며, 反面 어떤 地域間에 있어서는 同質性を 가지게 됨으로써 一定한 規準에 의한 空間類型을 찾을 수 있으며 地域區分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韓國의 國土空間秩序가 他空間秩序와 다른 것은, 이와 같이 天賦의 自然條件에 韓民族이 지닌 個別的 文化와 思想, 信仰이 投射되어 나타난 結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地域의 空間秩序를 理解하기 위해서는 그 땅에 居住·生活하는 사람들의 土地에 대한 觀念이 어떠한가를 알아보는 것도 하나의 方法이 될 것이다. 이 土地에 대한 觀念 또는 土地에 대한 居民의 思想·信仰을 편의상 土地觀이라 하기로 한다.

韓民族이 지니고 있는 가장 오래고 가장 根源的인 土地觀은 風水思想이라고 할 수 있다. 이 風水思想은 高麗以來의 歷史上 우리 文化의 全般에 강한 影響을 미쳤고, 韓國의 地理學史에 있어서는 地圖를 제외한다면 전부라 하여도 過言이 아닐 정도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土地觀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風水에 대한 研究는 歷史

1) Hargett, P., 1972, Geography: A Modern Synthesis, Harper & Row, Pub., New York, pp. 16-17.

的 側面에서, 그 思想的 背景이나 미친 바 影響을 考察한 論文이 몇 편 있을 뿐, 2) 地理學的 側面에서 接近해간 研究는 단편적인 몇 편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그 內容조차 整理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本考에서는 風水에 대한 資料로서는 거의 유일한 것이라 할 수 있는 日帝時의 朝鮮總督府 調査資料 第三十一輯³⁾을 要約整理하여 風水의 基本的인 概念을 파악하는 데 첫째의 目的을 두었다.

둘째로 風水의 基本思想에 內包된 土地觀을 聚落立地論과 對比하여 考察함으로써 否定的으로만 다루어지던 風水의 肯定的인 面을 導出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점에 있어서는 肯定的인 風水의 지나친 強調가 我田引水式의 論理로 되어 筆者의 主觀이 개입할 소지가 있음을 否認할 수는 없다. 加급적 客觀性을 유지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術法으로서의 風水, 특히 陰宅(墓地) 風水에 대한 常識 밖의 例들은 本考에서 제외함으로써 主張하는 바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끝으로 風水라는 傳統的인 土地觀이 當時의 自然環境에 결부되어 어떠한 空間秩序를 成立시키고 있는가를 서울을 例로 하여 說明하고자 하며, 今後의 風水地理研究에 하나의 方法으로서 이 例를 提案하는데도 目的을 두었다.

(2) 研究 範圍

風水에 있어서 大宗을 이루는 것은 墓地에 대한 陰宅風水이다. 따라서, 風水에 관한 研究를 하기 위해서는 陰宅風수를 無視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前述한 바와 같이 그 対象이 死者를 主體로 하는 것인 만큼 常識을 벗어나는 理論과 實例가 대부분이어서 學問的 立場에서 그 論理를 파악하는 것은 至難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風水思想에 있어서 要諦라 할 수 있는 地中의 소위 生氣의 本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陰宅風수를 論外로 할 수는 없으나 風水 自體에 대한 地理學的 研究가 全無하고, 筆者의 素養이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하는 까닭에 本考에서는 그를 제외시키고 陽基라고 하는 住居風水에 局限하여 考察하였다.

陽基風水에 있어서도 個別住居에 대한 研究는 陰宅風水와 마찬가지로 空虛하게 느껴지는 점이 많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國都 및 都邑風水에 있어서의 原則的인 面만을 강조하였다.

즉 風水思想의 本質的인 研究는 今後의 課題로 남겨 두고 風水가 現實的으로 地域에 투영되어 나타날 수 있는 表面的인 現象을 위주로 하여 研究範圍를 정했다. 그러나 風水에 使用되는 術法上의 用語와 基本原則은 陽基風水와 陰宅風水가 거의 同一한 것이기 때문에 細部事項을 제외한다면 兩者가 重複되어 論及되는 경우가 없지는 않다.

또한, 陽基風水中 個別 住宅風水와 陰宅風水中 墓域 및 墓穴을 定하는 問題, 그리고 吉地에 대한 現代地理學 및 環境學的인 側面에서의 研究는 風水의 核心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本考에서는 그 研究方向까지만을 提示하고자 한다.

2. 風水의 解釋上 問題點과 史的背景.

(1) 風水의 非科學性에 대한 論議.

風水의 定義를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대체로 風水란 땅속에 存在하여 地中을 흘러다니는 生氣⁴⁾에 依賴하여 生活에 影響을 미치는 運命을 良好하게 만들려 하는 一種의 土俗的인 風水의 運命信仰이라 말할 수 있다. 風水의 二大範疇로 陽基와 陰宅을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한 說明은 後述할 것이고, 이 兩者 중에서도 우리 生活에 直接的인 影響을 미쳤던 陰宅風수를 주로 風水로 看做하고 있다. 이 陰宅風水의 目的은 소위 吉地에 祖上의

2) 李 丙謙, 服部宇之吉, 村山智順 等の 研究論文과 金得規, 玄相允 等の 思想史 研究에 나타난 단편적 解說이 있다.

3) 村山智順, 1931, 朝鮮의 風水, 民間信仰 第二部, 朝鮮 總督府, 서울. 4) 이를 흔히 地力이라 한다.

遺骸를 묻어 그 遺骸를 묻은 땅에 흐르는 生氣를 받은 祖先의 陰德으로 子孫繁殖과 一家의 興隆을 招來케 하려는 것으로 陽基風水에 있어서도 思考의 發想은 이와 類似하다.

風수를 일컫는 말에는 堪輿, 地理, 地術 또는 風水地理 등 몇 가지가 있다. 堪輿란 하늘과 땅이란 뜻으로 天地의 뜻을 알아 그 造化를 짐작할 수 있다는 意味로서 地理의 吉凶을 判別하는 風水에 代身하는 用語이다. 地理는 山水의 地勢, 地形 및 그 動靜을 말하며 近代地理學에 비하여 땅을 動的이고 物活的인 것으로 여기고 땅과 人生과의 關係를 直接的인 것으로 관찰한다는 차이가 있다.

近代地理學이 土地를 人間과의 關係의 立場에서 취급하여 그를 利用한다는 被動的이고 無機的인 觀點을 견지하는 데 대하여, 여기에서 말하는 地理는 땅을 能動的인 것으로 보아 거기에는 萬物을 化生케 하는 生命力이 있고 이 生命力의 厚薄如何에 의하여 그 위에 居住하는 혹은 그곳에 父母祖上의 遺骸를 묻은 사람의 吉凶禍福을 決定한다는 有機的概念이다. 또, 地術이라 함은 地理를 다루는 術이란 뜻으로 土地의 勢相을 占치는 法을 말한다. 風水地理란 風水와 地理의 連辭이며 特別한 意味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堪輿는 사람과 土地와의 關係를 根本的·發生的觀點에서 表現한 것이고, 地理는 주로 學理的說明에 主眼을 두고 表現한 用語이며 地術이란 避凶求福의 術法에 置重한 用語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여러 가지 명칭을 가진 風水는 住居와 葬墓地의 相占法으로서 現代에 이르기까지 널리 알려져 있다.

村山智順은 風水란 말의 由來를⁵⁾ 中國明朝 嘉靖 四十三年 甲子(1564)년에 徐氏가 지은 “人子須知” 叙文에서 論風水名義를 하며 風水라는 명칭이 郭璞의 葬經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한 대목을 引用하고 있다.

晉代의 郭璞이 著述한 葬經은 葬書라고도 하고 그보다는 오히려 錦囊經으로 더욱 잘 알려진 有名한 風水書이다.⁶⁾

그는 葬經의 第一氣感篇에서 “葬者乘生氣”라는 말로 風水의 原理를 提唱하였다. 序論에서 밝힌 바와 같이, 生氣란 風水의 가장 核心的인 本體로서 이 말의 分析은 本考의 범위 밖의 일이나 郭璞의 葬經에 따라 간단히 그것을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즉, 사람은 身體를 父母에게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父母의 本骸와 子孫의 遺體와는, 마치 銅山이 西에서 무너져도 영묘한 鍾은 東에서 울듯 서로 感應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生氣는 地中을 周行하는 것으로 父母의 本骸가 生氣에 感應하면 그 子孫은 榮華를 누리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乘生氣하느냐가 先決問題로 되며 郭璞에 따르면 “夫陰陽之氣 噫而爲風, 昇而爲雲 降而爲雨 行乎地中 則爲生氣”라 하였다.

郎 陰陽이란 氣의 流動을 形而上 形而下 둘로 나누어 그 有形·有聲한 것은 風·雲·雨로 되고 無形·無聲한 것은 地中の 生氣가 된다는 것이다. 地中에 周行하는 氣를 특히 生氣라 하는 까닭은 이 氣가 地中에 있으므로 해서 萬物이 生命力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⁷⁾

그런데, 이 生氣는 乘風하면 逸散하고 界水하면 聚止하는 성질이 있다. 乘生氣란 生氣를 聚止하여 逸散하지 못하게 한다는 意味이다. 따라서 이를 일컬어 風水라 하게 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郭璞의 葬經에도 “經日 氣 乘風則散 界水則止 古人取之使不散 行之使有止 故謂之風水 風水之法 得水爲上 藏風次之”란 句節이 있다. 이 대목으로 藏風得水가 乘生氣의 原理로 취급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동시에 風水의 語源이 那邊에 있는가를 理解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風水의 名義를 밝히고자 하는 몇 가지 俗說이 있고⁸⁾ 靑鳥經에는 “夫 陽陰符合 天地交通 內氣萌生 外氣成形 內外相乘 風水自

5) 村山智順, 前掲書, pp. 3-7.

6) 李 熙德, 1976, 風水地理, 韓國思想의 源泉, 博英文庫80, 서울, p. 191.

7) 村山智順, 前掲書, pp. 306-308. 8) 村山智順, 前掲書, pp. 3-4.

成”이란 말이 나온다. 靑烏經은 朝鮮期 陰陽科 地理學課의 首位 텍스트로 “地理全書 靑烏先生 葬經”이라 불리는 것으로서 本文에 들어가기 前에 大唐國師 楊筠松의 序文이 있고 그 序文에 의하면 靑烏經은 地理陰陽의 術法에 精通한 漢代사람 靑烏先生의 論述이라 되어 있다. 그러니까 風水란 用語는 이미 漢代부터 있었던 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大唐國師 楊筠松은 唐 僖宗(在位874~888) 時의 帝室地師로서 光祿大夫를 받은 字를 叔茂라 한 사람이다. 그는 當時의 사람들로부터 子孫繁榮의 墓地를 相占하여준다하여 救貧先生이란 敬稱을 들었던 만큼, 相墓에 있어서 山形을 주로 하고 水向을 從으로한 一法을 생각해낸 점으로 미루어 그가 風水란 用語를 쓴 것이 風水의 一般化를 意味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以前의 記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으나 漢代까지 소급하는 風水의 語源으로 보아 아래와 같은 推論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즉, 風水란 글자 그대로 바람과 물을 말하는 것이다. 人間이 生活하는 데 바람과 물이 必要不可缺한 것임은 再言의 여지가 없다. 여기서의 바람이란 氣象 또는 氣候로 代替시켜도 무방하다. 生物의 生命은 물과 太陽熱과 溫度에 依存된다. 大氣의 空氣 構成은 地球全體를 통하여 거의 一定하지만 太陽빛과 熱에너지는 地域에 따라 크게 差異를 빚는다. 즉, 風水는 地域의 差等性을 內包하게 된다는 것이다.⁹⁾ 그러니까 生活維持에 직결되는 물과 氣象條件, 즉 風水는 土地를 選定하는 데 必須條件이었을 것이며, 居住地와 祖上의 永遠한 居所인 墓地를 相占하고 그 地勢·地相을 研究하는 행위를 가리켜 風水라 일컫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 같이, 住居를 選定하는 立地條件으로서 風水를 考察해 볼 수 있다는 점이 風水思想을 現代의立場에서 조영해볼 수 있는 基本的 根據가 되는 셈이다.

물론, 大部分의 風水의概念이 上述한 바와 같은 非科學性을 면치 못하는 것은 事實이며, 그

러한 점은 風水의 目的에서 더 잘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옛사람은 人生의 始終生死와 生活의 盛衰를 모두 하늘과 땅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하늘과 땅에 의하여 運命의 支配를 받고 있는 것이라 믿었다. 이 支配의 主體인 하늘과 땅 卽, 天地는 天과 地 둘로 나누어 人生에 대한 能動力에도 直接·間接의 差異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람의 生活이란 地上에서 營爲되는 것이기 때문에 生活資料의 大部分을 땅에서 얻을 수밖에 없다. 勿論 사람이 天을 도외시키고 生産保育을 전혀 땅에만 의존할 수는 없지만 주로 땅에서 많은 것을 얻어내고 있는 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겪고 있는 사실이다. 이에 옛 사람은 天을 父로 土地를 母로 생각함으로써 天地의 人生에 대한 關係를 天보다도 地가 더 直接的이고 가까운 實體로 받아들였다.

風水의 基本的인 目的은 이와 같이 人生에 直接 影響을 미치는 母와 같은 역할을 하는 땅에 의지하여 生活의 發展을 얻고자 함에 있다.

땅을 어머니로 看做하는 觀念은 옛날부터 있어 온 것이고, 특히 風水說이 發生·發達한 中國에서도 地母에 대한 思考는 強固한 信仰으로 傳承되어 왔다. 風水說도 그 根源은 이 土地觀念으로부터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즉, 地母의 生産力에 保育됨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生活에 도움을 얻고자 한 것이다.

風水는 近代地理學에서처럼 外面의인 利用厚生이나 드러난 地表現象의 空間秩序를 論究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生命保育力을 가진 땅에 그 吉凶禍福을 점쳐 물어 內面的인 人生의 幸運을 享受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風水의 地母觀念이 바로 近代地理學과는 달리 科學性을 喪失하고 하나의 土俗信仰으로 전락하는 갈림길이 된다. 最初의 段階에 理論이 成立되고 學理에 精通하여야만이 風水를 알 수 있는 程度까지는 科學으로서 發達할 충분한 소지를 가지게 되지만 實際 應用段階에 있어서

9) Philbrick, Allen K., 1967, This Human World, A Wilev International ed., New York, p. 37.

는 어머니를 대하는 乳兒의 태도처럼 合理的論究를 다하지 않고 땅의 愛情에 耽溺하는 術法的 性格을 띠게 되는 것이다.

(2) 韓國風水의 歷史的 背景

風水說은 陰陽八卦와 五行生氣의 觀念을 土台로 하여 一種의 思想·信仰으로까지 發達한 것으로 그 起源을 찾자면 中國上古時代에 遡及하여야 할 것이지만, 韓國에는 唐에서 風水說이 輸入되기 前에 이미 風水說이 存在하였었다고 한다.¹⁰⁾ 上古時代의 韓民族도 다른 民族과 마찬가지로 地上에서의 生活的 要求로부터 適當한 土地의 選擇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住宅을 選擇함에는 山水가 놓인 모양을 考慮하지 않을 수 없었고 國都를 定함에 있어서는 防衛와 攻擊의 地勢를 考慮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風水라고 할 程度까지 이르는 못했지만 이러한 土地選擇의 方法이 점차 抽象的·專門的으로 進歩되어 일종의 相地術로 발달하여 갔다.

風水의 前段階로서의 相地에 관해서는 高句麗의 東明王 朱夢의 沸流水上에 國都를 定했다는 기록¹¹⁾, 百濟始祖 溫祚가 漢上의 負兒山嶽(지금의 北漢山)에 올라 國都를 定했다는 기록,¹²⁾ 新羅 眞德王의 四靈地 會議에 관한 기록¹³⁾, 百濟의 政事巖에 관한 기록¹⁴⁾, 新羅의 淨神太子와

孝明太子의 五台山墓地에 관한 기록¹⁵⁾ 등 많은 記錄¹⁶⁾이 發見되고 있다.

이렇게 風水說에 가까운 것이 上古時代에 信奉되었는데 新羅末葉에 唐으로부터 學術的인 風水說이 輸入되자 新羅에는 急速度로 風水說이 流行하게 되었다.

古代에서부터 우리가 讖緯¹⁷⁾風水思想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唐으로부터 讖緯風水說이 들어와 갑자기 이것이 퍼졌으나 그 輸入年代는 分明치 않고 다만 新羅末에 盛行한 것을 보면 그 輸入은 新羅統一 後가 아닌가 생각한다.¹⁸⁾

그러나 이것을 널리 國民에게 認識시키고 또 信奉하게 만든 것은 新羅末 高麗初에 道詵國師가 그 思想을 宣傳한 以後의 일이니 韓國風水說의 始祖는 道詵으로 起算치 않을 수 없다. 道詵은 全羅道 雲岩사람으로 일찌기 光陽 白鷄山 玉龍寺에 있어서 號를 玉龍子라고 하였는데 高麗 崔惟清撰 道詵禪師碑에 의하면 그가 智異山 歐嶺에서 一異人을 만나 山川順逆의 形勢를 他日 南海海邊에서 자세하게 듣고 그 後 한층 더 陰陽¹⁹⁾ 五行²⁰⁾의 術을 研究하여 山理를 通하였다고 한다.

그後 그는 高麗太祖에게 設陣用兵의 法과 得國의 秘訣과 治國의 要領을 말하여 주고 風水說을 研究하여 王建의 創業을 도와²¹⁾줌으로써 이후 韓國의 政治, 社會, 文化 全般에 風水思想을 뿌리박게 하였던 것이다.^{22), 23)}

10) 金得規, 1958, 韓國思想史, 南山堂, 서울, pp. 162~166.

11) 三國史記, 高句麗本記.

12) 三國史記, 百濟本記. 13) 三國遺事, 紀異, 卷一, 眞德王條. 14) 三國遺事, 卷第二, 南扶餘條.

15) 三國遺事, 卷第三, 五台山寶叱徒太子傳記

16) 村山智順, 前掲書, pp. 662-665.

17) 讖緯라는 것은 世運과 人事가 一定한 數가 있다하여 國家의 興已盛衰라든가 王者의 運命에 관하여 未來를 予言하는 것을 말한다. 元來 讖이라는 것은 陰語·予言의 類로써 미리 國家와 人事의 吉凶禍福, 成敗 등을 예언하는 것을 말하며 緯라는 것은 六經에 대한 말로써 六經에서 말한 바를 怪異한 奇說로서 해석하여 經書의 뒤에 숨은 神秘를 밝히려는 것으로 六經의 支流이다.

18) 金得規, 前掲書, p. 163.

19) 陰陽說이란 人間과 宇宙의 一切 現象의 消長變化가 陰과 陽의 相互作用에 의거하여 陰陽의 相對的 關係라는 原理에 따라 그 理致를 考究하려는 思想이다.

20) 五行說이란 萬有의 活動要素를 水火木金土로 나누어 이 五行의 相互作用에 의하여 自然現象이 運行되며 人生의 吉凶禍福이 支配된다는 것으로써 世界觀을 삼은 思想인데, 이 陰陽五行說은 風水의 밑바탕이 되는 基本思想의 역할을 한다.

21) 佛教通史, 道詵條

22) 金得規, 前掲書, pp. 194-105. 104

23) 韓國思想研究會, 1971, 韓國思想史, 法文社, 서울, pp. 90-93.

道說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太祖는 十條遺戒中에서도 風水說을 강조하여 高麗時代全體를 통하여 風水의 꽃을 피우게 만들었다.

朝鮮朝에 있어서도 初期에는 國都風水를 中心으로 강한 影響을 끼쳐왔으나 陽基에 대한 風水는 그 勢力이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陰宅風水思想은 계속 그 勢力을 유지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에도 民間에 널리 流布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風水의 滿開期였던 高麗時代와 朝鮮初의 重要한 風水上的 歷史的 事件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²⁴⁾

開國 創業의 主人 高麗太祖 王建에게는 出生 및 그의 一生에 많은 風水의 說話가 남아있고 子孫에게 남긴 訓要十條中에서도 風水의 重要性을 強調하고 있음은 앞에서 말한 바 있다.

訓要中 風水는 여러 곳에서 散見되고 있는데 第二訓에서 “諸寺院 皆道說推占 山水順逆 而開創道說云吾所占定外 妄加創造 則損薄地德 祚業不永”이란 대목이 있고 이 條訓으로 當時 王室의 遺訓, 地理說에 대한 信念의 一端을 크게 엿볼 수 있다.

또 第五訓에는 “朕賴三韓山川陰佑以成大業 西京水德順調 爲我國地脈之根本大業萬代之地 宜當四仲巡駐 留過百日 以致安寧”²⁵⁾이라 하여 高麗의 統一大業이 三韓山川의 陰助(土神)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西京의 風水上的 重要性을 강조함으로써 以後 歷代의 諸王에게 깊은 影響을 주어 누누히 이 方面의 巡住 및 造宮을 行하게 한 根本的 思想을 이루었다.

그 외에도 第八訓에 “車峴以南 公州江外 山形地勢 並趨背逆 人心亦然……”²⁶⁾이란 部分이 나와 있는데 이는 國城風水에 관한 것으로 後에 論述하겠다.

太祖二年 松岳山下를 中心으로 열린 王都 開京도 風水地理上的 한 著名한 地鄉으로서 種種

의 說話가 붙어있다. 西京에 대해서도 많은 風水上的 얘기가 전해오고 있다.

顯宗朝에는 銳方이란 術士가 올린 “三韓會土記”란 織緯風水書에 의하여 지금의 慶州 땅에 東京을 設置했고 第六代 成宗과 第十代 文宗在位時는 風水 織緯의 說이 極盛을 부린 時代였다.

그 後에 있어서도 이와 類似한 例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發生했다.

肅宗朝에는 金謂碑이 上書하되 “道說記” “道說踏山歌”, “三角山明堂記” 등의 風水書를 이끌어 거기에 多少 自己의 解釋을 加하여 三角山의 南쪽 木貢山(南山)의 北坪地에 南京을 設置하고 遷都할 것을 건의한 일이 있었다.

第十六代 睿宗은 陰陽五行 및 風水說을 惑信하여 官撰 地理書를 編纂하고 造宮과 巡駐를 行함으로써 다음의 仁宗, 毅宗에게 끼친 影響 또한 甚大하였다.

仁宗時의 妙淸, 白壽翰 등의 風水說에 입각한 大花宮建設 및 西京遷都運動도 잘알려진 例라 할 수 있을 것이다.

二十代 神宗 때에는 崔忠獻 등이 風水說에 근거하며 山川裨補都監이라는 臨時 官廳을 設置하고 國內山川 全體에 亘한 大規模의 裨補施設을 企圖한 적이 있다.²⁷⁾

高麗의 末期에 접어들면 國業을 延長하기 위한 무수한 風水上的 例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朝鮮 建國初에 있어서의 風水例도 枚舉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타나면서 점차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명맥을 유지하는 상태이다.

3. 風水의 術語의 地理學的 解釋

風水의 種類는 人體가 直接 土地에 닿게되는 風水가 大宗을 이루었으며, 그에 의하여 風水의 表象 如何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24) 이에 대해서는 “李丙燾, 1948, 高麗時代의 研究, 朝鮮文化叢書, 第4輯, 乙酉文化社, 서울”을 參考하였음.

25) 四仲年이란 子午卯酉의 해를 말한다.

26) 車峴이란 現在의 車嶺을 말하고 公州江은 錦江을 말한다.

27) 高麗史節要, 卷十四, 神宗元年 正月條.

死者를 對象으로 한 陰宅(墓地)風水와 生者를 對象으로 한 陽基(住居)風水로 大別하는 것이 般的 傾向이다.

陰宅이란 死者의 居所 즉 墓地에 대한 風水를 말하는데 風水書를 葬書 혹은 山書(이 경우의 山이란 墓地를 말함.)라 하는 것으로서도 陰宅 風水의 보편화 정도를 알 수 있다.

父母와 祖上의 遺骸를 吉地에 安葬하려는 것 은 孝의 延長 즉 追孝觀念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父母祖上의 墓地의 善惡에 의하여 그 子孫의 運命에 대한 吉凶의 差가 생긴다고도 생각 하는 功利的이고 現實的인 判斷도 중요한 영향 을 미친다. 朝鮮朝에 들어와서도 陰宅風水의 勢力이 조금도 감소되지 않은 까닭은 儒教振興에서 그 理由를 찾아 볼 수 있다. 孝를 重視하는 儒教의 理念에 墓地風水의 追孝觀念이 부합되어 一般에 널리 普及된 것이다.

陰宅風水는 사람의 生活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耕地나 水利가 良好한 經濟的인 土地를 피하고, 山岳이나 丘陵 혹은 水利施設이 되지 않은 耕作에 不適한 土地等 經濟的인 條件을 具備하지 못한 土地에 位置시키는 特性이 있다.

陽基란 살아있는 사람의 住居地를 意味한다. 生死를 區別하여 生者를 陽, 死者를 陰이라 하는데 死者의 住所인 墳墓를 陰宅이라 하는데 대하여 生者의 住所 즉 個人의 家宅 또는 集團的인 部落이나 都邑의 基地를 陽基라고 부른다.

이 陽基는 다시 그 對象에 따라 個人家屋의 宅地를 다루는 個人陽基와 사람들의 집단적 生活場所를 다루는 集團陽基로 나누며, 對象地域의 범위에 따라 國域風水, 國都風水, 都邑風水, 住宅風水等 네 가지로 나눈다.

이와 같은 風水의 種類 外에 地理學的 接近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은 地形 地勢를 일컫는 用語가 風水說에서는 特異한 形態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陰宅과 陽基도 그 中의 하나로 墓地와 住宅地를 일컫는 用語라는 것은 上記한 바와 같다.

또 땅의 起伏을 이루는 곳, 즉 山이나 언덕을 龍이라 하는데 그 모양이 흡사龍의 꿈틀거림과 같다하여 부친 말이다.

徐善繼는 山의 變態가 千形萬象이라 그 起伏, 順逆, 隱現이 무상하여 體段이 平常치 않아 지척간이라도 옮김에 따라 判異한 고로 이런 形態를 龍의 變化와 흡사하다해서 이름지었다고 했다.²⁸⁾

龍이 陰陽造化를 부리는 것이기 때문에 山에 대한 비유의 의미도 될 수 있다.

山을 龍이라 하는 것은 그 外樣에 기초를 두고 있는 術語인데 대하여 生氣의 運行이란 점에서 山을 말할 때는 脈이라 한다. 마치 사람 몸의 血脈을 따라 血氣가 運行하는 것과 같다. 또 이 龍脈이 起伏曲折하는 곳을 대나무 마디에 비유하여 節이라고 한다.

陰宅에 주로 쓰이는 穴이란 龍脈中에서 가장 生氣가 聚注한 곳, 즉 生氣의 精髓가 모인 곳으로 이 말은 鍼灸學에서 人體의 要處 즉 鍼灸를 施術하는 곳을 穴이라 하는 것과 同一 觀念에서 나온 말이다.

그리고 穴周圍의 形勢를 砂라 하는데 이는 古人이 適當한 山勢地理를 說明하여 보여줄 때, 또는 相地術을 傳授할 때 砂에 의하여 그 形勢를 묘사한 例가 있음에서 유래한다. 道誥에 게 風水의 妙理를 가르쳐준 異人도 모래를 쌓아 그것을 說明하였다. 어떤 地域의 山水形勢를 論할 때 그를 砂라 칭하는 것은 이 까닭이다.

穴과 砂가 합하여 陽基나 陰宅中의 完成된 規模를 이루었을 때 이를 局이라 하며, 하나의 局 하나의 穴을 이루기까지의 龍脈에 일컫는 來龍이란 말도 있다.

주위의 山을 가리키는 말로는 넓은 意味의 來龍中 그 穴에서 가장 멀리 있는 높고 큰 山을 祖山, 가까이 있는 높은 山을 宗山이라 하고 穴 바로 뒤에 높이 솟아있는 山은 主山 혹은 後山이라 한다. 部落이나 墓地 뒤에 있는 山인데 部落의 경우에는 이것이 部落을 鎮護한다는 뜻에서 鎮山이라고도 한다. 또한 穴의 南

28) 韓松溪, 1975, 風水地理 明堂全書, 明文堂, 서울, p. 18

쪽을 向하여 穴 뒤의 來脈에서 나와 穴의 東쪽을 둘러싸면서 穴의 西쪽에서 그치는 山脈을 靑龍이라 하고, 穴의 西쪽을 싸면서 東쪽으로 穴 앞을 지나가는 山脈을 白虎라 칭하는데 이는 四方守護神 靑龍, 白虎, 朱雀, 玄武에서 나온 것으로 東西쪽을 護衛한다는 뜻에서 東쪽脈을 靑龍 西쪽脈을 白虎라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穴向이 南面을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一般的으로는 穴앞을 바라보며 左靑龍, 右白虎하는 것이 보통이다. 穴内の 生氣가 漏散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것이 겹쳐지는 것을 理想으로 삼아 内外로 나누어 內靑龍 外靑龍, 內白虎 外白虎로 區分한다. 이 때 外龍虎는 穴에서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地域은 넓게 퍼지게 된다.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明堂이란 말은 穴앞에 靑龍, 白虎에 의하여 圍抱된 곳을 뜻한다. 이 明堂은 内外로 區別하여 穴 바로 앞의 平坦한 땅을 內明堂이라 하고, 그보다 멀리 內明堂에 비하여 더 廣大한 平地를 外明堂이라 한다.

明堂이란 名稱은 天子가 君臣의 拜賀를 받는 장소의 명칭에서 유래된 것으로 판단된다.

물을 나타내는 術語로는, 穴이나 內明堂의 兩側, 즉 龍虎內에서 發源하여 흐르는 水流의 發源處를 得이라 하고, 그 水流가 龍虎의 서로 빗겨 열려진 곳을 흘러 나가는 장소를 破 또는 水口라고 하는 명칭이 있다. 이에도 龍虎와 마찬가지로 內得, 外得, 內水口, 外水口로 나누는 경우가 있다. 흔히 穴앞에서 흐름이 보이는 것을 得, 보이지 않는 水流를 破 또는 水口라 하기도 한다.

그밖에 穴앞에 있는 砂의 一種으로 높지 않은 山을 案山, 그 더 앞의 높은 山을 朝村山이라 하며 穴에 대해서 朝拱하는 형태이므로 이것이 없으면 손님없는 主人, 臣下없는 君主처럼 品位를 잃는 것으로 간주한다.

以外에도 看龍, 尋龍이라든가 形勢·坐向 또는 五星·九曜 등 많은 명칭이 있으나 거의 대부분이 陰宅에 쓰이는 것으로 本考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省略한다.

4. 聚落立地論的 立場에서 본 風水의 實例

(1) 近代의 地理學과 風水의 差異點

近代地理學과 風水地理의 最大 差異點은 그 研究, 應用對象인 土地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하는 土地觀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風水地理에서의 土地란 近代地理學과는 달리 生命력을 가진 有機體로서, 人間에 대하여 能動的인 影響力을 行使할 수 있는 것으로 看做된다.

琢玉斧解題에 “西洋의 地質學은 外形에 먼저 着眼하여 그에 內包한 理를 究明하는, 即 形에서 理를 推究하는 學問이고 東洋의 風水地理學은 內面に 潛在한 理를 먼저 窮究하여 外部 形體에 이르는 理形一貫하는, 即 理에서부터 形으로 推究하는 學問이라고 생각한다. 風水地理學은 먼저 理를 心思로 妙會한 後에 目力으로 山川現象을 裁定함에 따라 吉凶禍福이 隨應하는 技術學이다. 그러므로 明師가 되려면 前賢의 眞傳載籍을 博覽해서 眞見妙法을 多識素養하여 育中에 含蓄하지 않으면 不可能한 것이다.” 라고 지적한 대목이 있다. 29)

즉 近代地理學의 研究方法은 地表上의 諸事象을 觀察하여 거기에 內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原理를 밝혀내는 歸納的인 것인데 대하여 風水는 陰陽五行說 등 基本的 思想을 바탕으로 土地의 絶對價值를 演繹해내는 方法을 취한다는 것이다. 陰陽五行說이란 一般原理를 바탕으로 하여 여기에서 土地의 生氣를 感應받을 수 있는 吉地選定이라는 特殊原理를 이끌어 내는 推理인 點에서는 확실히 演繹的인 方法이다.

近代地理學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大部分 研究가 現實에 存在하는 地表上의 事象들을 觀察, 蒐集, 整理하여 地域에 通用되는 一般的 原理를 究明하는 데 注重되어 왔음이 사실이다.

이러한 面은 地誌(Regional Geography)의 경우에 더욱 심하여 地表事象의 나열적 記述이 과

29) 韓國風水地理叢書, 1969, 琢玉斧解題, 景仁文化社, 서울.

연 科學일 수 있는가 하는 地理學 本來의 의문
 마저 제기했던 것이며, 이 의문은 地表事象의
 空間 배열 형태에서 一定한 一般原理, 즉 地域
 秩序를 導出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극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定性的 說明法이라 한다.

近代地理學 方法論에 있어서도 演繹的인 方
 法이 使用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特히 立地理
 論에 있어서 初期의 立地理論이 現象을 바탕으
 로 거기에서 原理를 만들고 model을 형성한 것
 은 사실이지만, 그 후에는 model을 完全한 論
 理的 타당성 검증에 의하여 만들어 놓고 거기에 現
 實 適應 如否를 研究하는 方法도 썼던 것이다.³⁰⁾

Lösch는 立地model을 現實에 적용했을 때
 model과 現實이 부합되지 않으면 model을 修
 正하거나, 오류로 단정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지
 적한다. model에 論理的 결합이 없다면 現實이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看做해야 된다는 것이다.
 不合理한 現實空間의 說明보다 그를 改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最適立地를 위한 理論研
 究가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고 했다.³¹⁾

이것은 假說이나 모델을 形成, 검증하는 例인데,
 現在에 있어서도 定性的인 論文이나 說明을 흡
 수, 보완하고, 서로 다른 場所, 서로 다른 時間
 에 적용할 수 있는 特殊한 절차를 포함하는 計
 量的 區分法과 함께 흔히 쓰이는 三大 地理學
 方法論 中的 하나이다.³²⁾

風水의 演繹的 方法, 즉 먼저 理를 心思로 妙
 會하고 후에 目力으로 山川現象을 裁定하는 方
 法은 이와 같은 現在의 hypotheses and models
 theory와 類似한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처음
 假定 혹은 model이라 할 수 있는 陰陽五行說이
 論理的 妥當성을 갖고 있지 못한 점이 根本的 差
 異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陰陽五行說을 科學的이라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없다. 西洋式의 論理展開方式 으로
 陰陽五行說을 分析하는 한 科學的인 것이 되리
 라는 기대는 확실히 不可能한 일이다. 따라서
 風水는 近代의 意味의 科學이 되기에는 그 假定
 부터가 전혀 부합되지 않는 性格을 띠고 있는
 傳統的 土地觀이었다.

勿論 이것은 風水의 基本的인 思考展開過程
 의 경우이고 地中の 生氣가 어디에나 存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實際로 땅을 相占하는 경
 우에는 現實에 바탕을 둔 經驗的 方法이 없지
 도 않았을 것이라 판단된다. 다만 “今人は 一
 方書를 얻고서 이것은 祝氏家寶다, 楊會氏의 秘
 傳이다 하고 믿기를 神같이 하고 深藏키를 寶
 物같이 한다.”³³⁾고 지적한 바와 같이 術士 자
 신의 經驗적 土地觀은 一代에 그치고 非合理的
 이라 생각되는 原典model에만 급급했던 나머지
 科學으로의 發展을 더욱 지연시켰을 것이라 생
 각된다.

筆者의 個人的인 見解로는 陰陽五行說과 土地
 와의 關係가 西洋式 論理로 非合理的이라 하는
 점을 부정할 의도는 전혀 없으나 다른 側面에서
 그것에 接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에
 대한 研究는 今後 課題로 뒤에 미룬다.

(2) 國域風水의 例

李 重煥은 八域誌³⁴⁾ 八道總論에서 우리나라의
 國域에 대한 記述을 남기고 있다. 風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地誌的 國家位置에 대한 說明이
 지만, 崑崙山과 百頭山을 祖宗山으로 세운 것이
 風水에 대한 勢力이 아직 상당히 미치고 있었
 음을 보여주는 좋은 例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0) Lloyd, P. E. & Peter Dicken, 1972, Location in Space: A Theoretical Approach to Economic Geography, Harper & Row, New York, pp. 2-3.

31) Losch, A., 1967, The Economics of Location, translated by William H. Woglom, John Wiley & Sons Inc., New York, p. 4.

32) James, Preston E., and Clarence F. Jones (editors) (1954), 1964, American Geography: Inventory and Prospect, Syracuse Univ. Press., pp. 3-68, 142-166, 240-332參照

33) 金榮昭, 1975, 陰宅要訣, 濟州, p. 4.

34) 보통 擇里志라 부르는 것으로 18世紀 英祖때 쓰여졌음, 山水錄, 八道秘密地誌, 東國山水錄, 八域可居處等の 異名이 있다.

그러나, 正統 國域風水의 例는 역시 道詵과 高麗太祖 王建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玉龍記에 “우리 나라는 白頭에서 始作하여 智異에서 끝나며 그 地勢가 水根木幹이라”했다. 오늘날 智異山을 頭流山이라 하는 것도 이에 근거를 둔 명칭인 듯 하다.³⁵⁾

여기서 道詵이 우리 나라의 根幹으로 白頭山과 智異山을 잡은 것은 매우 흥미있는 일이다. 半島北部의 最高峰과 南部의 最高峰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그러하거니와 白頭山에서 始作하여 함경산맥, 태백산맥, 소백산맥으로 이어져 智異山에 이르는 一連의 山系가 대체로 127°E~128°E 사이에 위치한다는 것도 그러하다.

우리 나라의 中央經綫은 127°30'E으로 대체로 白頭山, 智異山을 잇는 線과 일치하고 있다. 當時 中央經綫에 대한 概念을 알고 그와 같은 線을 그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나, 半島의 가운데를 지나는 中軸을 根幹으로 잡았다는 것은 半島全體의 地圖가 없었던 상황으로서는 매우 신기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음 高麗太祖 王建의 訓要十條 第八訓에도 國域風水에 대한 기록이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車峴以南 公州江外 山形地勢 並趨背逆 云云한 부분이 그것이다. 車峴以南 公州江外란 地域은 대체로 오늘날의 全羅道地方에 해당된다. 新羅末 後百濟 땅으로 第八訓에 의하면 그곳의 地理的 形勢가 背逆되어, 그 方面의 人心도 역시 그러할 것인즉 그 地方 사람이 혹 朝廷에 參與하여 王候 國戚과 結婚하고 國政을 잡게 되는 때는 或은 國家를 變亂하고 或은 前日 併合에 대한 怨恨을 품고 있으므로 設령 良民일지라도 벼슬자리에 用事케 말라는 것이다.³⁶⁾

王建은 이와 같은 자신의 政治的인 판단을 山形地勢에 돌림으로써 타당성을 마련코자 하였으나, 그것이 牽強附會가 아니었다면 當時 以前부터 전하는 因襲的 地理說인지도 알 수 없다.

李 丙憲博士가 引用한 星湖 李瀾의 논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37) 즉 風水原則에 山水回抱 혹은 山來水回란 말이 있다. 이는 山水가 聚合하고 賓主가 相射하여 風氣가 散流하지 못하도록 制止해야 한다는 뜻인데, 만약 그렇지 못하고 山水가 主體에 대하여 背逆한다던가 혹은 散走한다는 것은 風水상 절대로 不吉한 형태라는 것이다. 雪心賦란 地家書에는 “滅族亡家 總是山飛水散”이라고 하였다.

風水的 觀點에서 湖南地方을 大觀하면 開京에 대하여 一大 背馳의 形勢를 이루고 있음은 물론, 그 主體에 있어서도 山水散走의 傾向이 있는 듯 하다는 것이다.

좀 詳細히 말하면 이 地方의 제일 중요한 動脈이라 볼 수 있는 錦江은 그 根源을 全北·慶南의 地境인 전북 장수군 六十嶺에서 發하여 北으로 逆流하여 忠北地方에 들어와 다시 西折하여 公州의 北쪽을 지나 西南으로 흘러 群山 바다에 注入하는 一大 弓形의 水流를 이루고 있고 그 流域一帶의 地勢도 자연 背逆의 形이며 風水家의 反弓水의 形을 면치 못한다고 한다. 錦江의 北流外에 蟾津江은 東南으로 흘러가고 榮山江은 西南으로 흐르고 萬項江과 東津江은 모두 西로 入海하여 星湖의 所謂 散髮四下의 形을 이루어 風水條件에 위배된다는 것이다.³⁸⁾

이와 類似한 기록은 星湖僮說 別條 兩南水勢條와 東國輿地勝賢 第二十二 梁山條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湖南의 背逆山勢理論은 물론 근거가 없는 것으로 風水上的 反弓水 理論이 그 主體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吉地와 惡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理論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星湖僮說 兩南水勢條에는 嶺南과 湖南의 地理上 優劣을 比較하여 論하고 있다. 즉 慶尙一道는 山水가 聚合하는데 全羅一道의 山水는 散走한다고 했다.

이도 또한 湖南地方을 劣勢에 놓으려는 牽強附會이겠으나 湖南과 嶺南의 基盤岩의 差異가

35) 村山智順, 前掲書, p. 657.

36) 村山智順, 前掲書, p. 656.

37) 李 丙憲, 前掲書, pp. 55-58.

38) 星湖僮說, 卷一天地篇下, 新都漢都條.

두드러지는 만큼, 그 地形形成營力에 의한 地勢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Archaeozoic인 小白山脈을 境界로 그 以東인 嶺南은 주로 Upper Jurassic to Middle Cretaceous의 地質構造이고 그 以西인 湖南은 Jurassic and Cretaceous Granite을 이룬다. 흔히 嶺南과 湖南의 山勢가 다르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근거있는 이야기로서, 地質構造와 地形과 文化景觀을 綜合한 地誌의 研究가 比較分析의 方法을 使用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39)

(3) 國都風水의 例

國都風水의 代表的인 例는 開京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 國都風水의 歷史와 傳說上 가장 찬란한 얘기거리를 가지고있는⁴⁰⁾ 곳이기 는 하지만 筆者가 實地形을 본 적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本考에서는 부득이 세외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이 章에서는 國都風水의 例 中에서 現在 그 實際의 地形을 觀察할 수 있고 奠都의 過程이 比較的 詳細히 알려져 있는 서울을 集中的으로 分析해 보고자 한다.

太祖가 卽位한 후 最初의 遷都 候補地로 꼽혔던 곳은 지금의 서울이다. 이는 漢陽이 高麗의 文宗, 肅宗 以來 南京으로서 또는 風水地理上으로 선택된 理想郷으로서 歷代의 王室이 重視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太祖도 대개 여기에 傳統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당시 政堂文學 權 仲和의 상주에 의하여 不時에 鷄龍山을 相地케 되었고, 漢陽遷都는 일단 보류되고 말았다. 鷄龍山은 德裕山의 一脈이 갈려나와 北走하여 公州 東쪽에 이르러 C字形으로 굽어져 다시 그 祖宗山인 德裕山을 돌아다 보는 形勢라 하여 이를 回龍顯祖라 하고 또 이것이 彎曲하여 안으로 휘어진 까닭에 山太極이라고도 하며, 이 山太極 內에서 得(水口)이

東南으로 빠져 다시 東北으로 逆流하여 錦江과 합하고 다시 鷄龍山의 北쪽을 지나 公州를 거쳐 西海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水太極이라고 한다.

그런데, 太祖 2年 鷄龍山 新都工事도 당시 京畿道 都觀察使 河崙의 反對로 突然 停罷되고 말았다. 河崙은 그에 대신할 都邑地로 母岳(鞍山)의 南쪽 땅을 내세웠다. 41)

河崙은 母岳을 明堂으로 내세우는 理由로 몇 가지를 提示하였다.

母岳이 얼마쯤 좁은 것 같이 보이지만 開城의 康安殿⁴²⁾과 平壤의 長樂宮에 比하면 다소 넓을 뿐 아니라 風水上的 條件이 前朝 秘錄이나 中國 地理法에 符合한다는 것이다. 43)

母岳遷都論은 많은 論難을 거듭하다가 격심한 反對에 부딪쳐 이 또한 좌절당하고, 書雲觀員의 의견에 의하여 그리고 衆議를 좇아 漢陽을 다시 新都의 候補地로 決定하게 되었다.

이후 몇 번의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결국 現在의 서울인 漢陽이 新都로 確定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거듭된 奠都 문제 論議에서 나타난 當時 重臣 및 地師들의 見解를 살펴보면, 風水가 新都選擇의 決定的인 要素로서 使用된 것이 아니라, 自身の 意見을 合理化시키기 위한 方便으로서 利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河崙이 鷄龍을 新都로서 反對한 理由中의 첫째가 鷄龍山 位置의 南方 偏在로 말미암은 道里의 不均衡이었던 만큼, 흔히 알려진 바와 같이 風水思想의 決定的인 影響만은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母岳에 대한 諸臣의 意見에 있어서도 風水에 대한 現實的 해석이 散見되고 있음은 흥미로운 일이다.

判三司事 鄭道傳은 母岳을 評하여 그곳이 -

39) Fletch, C. J. N., 1975, Structures in Folded Rocks, illustrated by structures from Republic of Korea, 영국지질과학연구소, 해외부.

40) 村山智順, 前掲書, p. 712.

41) 지금의 서울 연희동·신촌 일대를 말함.

42) 滿月台 附近을 말한다고 함.

43) 朝鮮朝實錄 太祖三年二月 戊子(十八日)條, 癸巳(二十三日)條.

國의 中央에 있어서 交通도 편하지만, 地域이 좁아 宮寢과 朝市宗社를 容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고, 門下侍中 贊成事 成 石璘도 母岳이 山水의 會와 漕運의 便益이 있어 可하다고 할수 있지만 明堂이 傾窄하고 後山이 低微하여 規局이 都邑에는 不適하다고 하였다. 또 政堂文學 鄭 摠도 母岳의 明堂이 甚狹하고 主山(즉 後山)이 陷溺하여 水口가 關鎖치 않다는 理由로 反對했던 것이다. 44)

母岳遷都說에 對한 諸臣의 意見은 그 理論의 근거를 風水에서 끌어오기는 했으나, 위에 引用한 바와 같이 現實的, 人文地理學的 觀點에서 贊否를 判斷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로 合理的인 것이었다.

河崙이 鷄龍山 位置가 南方에 偏在되어 道里의 不均衡이 일어날 것을 근심했던 것은 首都의 政治地理的 位置를 意識한 判斷으로, 首都의 偏心的 位置가 中央의 位置에 비하여 統治上 國家經濟上 不利하다는 것은 오늘날의 政治地理學에 있어서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45) 當時의 國域을 34°~42°N(바다 부분 및 咸北一部 제외)로 볼 때 鷄龍은 36.3°N이고 母岳은 37.5°N으로 鷄龍보다는 母岳이 國土의 中央的 位置임을 알 수 있다.

首都의 中央의 位置에 대한 좋은 점은 反對者들도 잘 認識하고 있었던 듯 하다. 鄭 道傳이 母岳을 一國의 中央에 位置해 있기 때문에 交通이 편할 것이라 지적한 점과 成 石璘이 漕運의 便益이 있다고 본 점은 모두 그 例라 할 수 있다.

母岳의 明堂이 좁고 後山이 낮다는 점도 首都의 立地條件으로는 不利한 것으로 認識되고 있다. 明堂이란 國都風水에 있어서는 都城內를 意味하는 것으로 그것이 좁으면 궁궐의 조영은 물론이고 百姓이 살아가기에도 불편하며 朝市開設에도 難點이 있을 것임은 상식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다.

여기서 後山 즉 主山이 낮다는 것은 都市立

地論的 立場에서 어떤 단점이 될 수 있는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이에는 두 가지 側面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四수호신 中 北쪽 玄武에 해당하는 主山이 낮을 경우, 겨울철에 불어오는 매우 한랭한 北西 계절풍을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聚落立地로서 적합치 못하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國防地理的 立場에서 都城 방위를 위한 天然의 地形이 미약하면 國防에 취약점을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現在 母岳과 漢陽은 다같이 서울特別市域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母岳인 新촌일대와 漢陽인 鍾路, 中區 일대를 比較해보면 확실히 新촌의 明堂 넓이가 서울의 built-up area인 漢陽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當時의 實地形이 都市建設에 의하여 많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精確한 分析을 하기는 어렵지만 母岳이 漢陽보다 그 主山이 낮다는 것도 짐작할 수는 있는 일이다.

漢陽이 廣州山脈의 一脈인 道峰, 北漢山系 및 白岳에 의하여 거의 완벽하게 北面이 둘러싸여 있는데 대하여 母岳은 그 位置가 漢陽의 西쪽으로서 漢江이 서울의 남쪽을 돌아 김포 반도쪽으로 北西進하는 연변이기 때문에, 오늘에 있어서도 西海와 강화도 앞바다를 지나 김포 반도와 개풍, 고양군 사이를 흐르는 漢江下流의 低平한 地域을 통하여 北西季節風의 맞바람을 받는, 비교적 겨울철보내기가 漢陽에 비하여 불편한 地域이다.

上記한 바와 같은 매우 合理的인 理由에 의하여 결국 漢陽으로 決定되고 말았으나, 그 논거를 삼았던 理論이 風水였음은 주의해야 할 사실이다. 이것은 적어도 國都나 都邑風水의 경우에 있어서는 現實地形의 立地的 諸條件을 참작하여 風水理論이 成立된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을 가능케 해 주기 때문이다. 46)

漢陽 奠都에서 드러난 太祖와 諸臣의 意見도

44) 村山智順, 前掲書, pp. 683-687.

45) 權 寧植外, 1976, 國防地理, 博英社, 서울, p. 130.

46) 물론 開國初期의 政策的인 考慮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지만 本考에서는 歷史的인 決定過程을 무시했기 때문에 부득이 결과만을 중시하게 되었다.

母岳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合理的 風水觀에서 出發하고 있음이 記錄에 남아있다. 漢陽에 대한 風水的 記錄은 많이 남아있으나 本考에서는 聚落立地와 關係되는 두 가지 事實만을 分析하기로 하겠다.

漢陽의 地勢를 살펴보면 대략 아래와 같다. 漢陽은 北岳 즉 白岳을 主山으로 삼아 그 左右枝에 의하여 環抱된 곳이니 白岳의 右枝 즉 白虎는 西向하여 인왕산을 일으키고 거기서 敦義門(西大門) 昭義門(西小門), 崇禮門(南大門)을 거쳐 다시 南山을 일으키어 案山을 作하면서 光熙門址에 이르러 발을 멈추었다. 左枝 즉 靑龍은 東으로 뻗어 應峰을 솟치면서 惠化門(東小門)을 지나 駱山에 이르러 무릎을 굽혔다. 따라서 白岳은 玄武, 仁旺은 白虎, 駱山은 靑龍, 南山은 朱雀에 해당한다. 그런데 右枝가 길고 左枝가 짧기 때문에 風水상 右旋局이 되며 西쪽으로 入海하는 漢江과는 서로 逆勢를 이루고 있다. 47)

漢陽의 水流를 보면 白岳 左右에서 흐르는 得(소위 明堂水)은 市內를 東으로 貫流하여 東大門과 光熙門사이를 빠져 往十里, 踏十里를 지나 篤섬부근에서 漢江으로 들어간다. 漢江은 漢陽의 客水로 北漢江 南漢江의 二大줄기가 楊平 兩水里 龍津에서 서로 합쳐 北漢山 골짜기의 물을 받아들이면서 漢陽을 둘러싸듯하며 北西入海한다.

風水의 立場에서 보자면 이와 같은 漢陽은 山水環抱하고 水口關鎖하며 山水의 勢가 逆하고 있는 吉地임은 물론이고 그 來脈 또한 白頭로부터 起源하여 之玄을 이루면서 白岳으로 뻗은 東方精氣融結鍾會處로 찬미되고 있다.

聚落立地의 立場에서의 漢陽을 風水와 비교해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漢陽은 소위 山河襟帶의 要眞으로 방어상 유리하며, 그 位置가 半島의 거의 中央에 있기 때문에 道里의 均正을 얻을 수 있고 漢江에 의한 水運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요컨대, 漢陽의 地勢는 비단 風水상으로 뿐만 아니라 政治, 軍事上으로나 運輸, 交通上으로나 또 自然景觀의 美的인 點에 있어서나 모두 國都로서의 손색이 없다. 특히 風水에서 말하는 山水逆勢⁴⁸⁾가 漢陽에 미치는 自然環境의 영향은 주목할 만하다.

서울 부근에서 漢江은 서울을 北으로 감싸듯 돌며(環抱) 서울 南쪽을 지나 北西進하는 大規模의 曲流河川 형태를 취한다. 이때 현재의 관악구 일대가 曲流河川의 攻擊面이 되고 용산구 쪽이 point-bar面을 이루기 때문에 漢江이 범람하는 경우에도 point-bar쪽인 都城內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그에 겹쳐 得인 청계천이 漢江과는 反對方向을 취하여⁴⁹⁾ 심한 범람이 일어나는 경우라 할지라도 急速度로 都城이 侵水되는 것을 방지해주고 있다.

게다가 청계천은 point-bar쪽인 篤섬에서 漢江에 합류하기 때문에 洪水發生時 都城內의 下水와 地表水를 쉽게 排水할 수 있는 利點을 갖고 있다. 즉 공격 사면쪽에서 流入되는 支流가 本流의 水壓때문에 排水不能이 되는 경우일지라도 point-bar쪽은 本流의 水壓이 훨씬 낮기 때문에 支流의 排水가 공격사면쪽 보다는 훨씬 유리한 것이다. 50)

이러한 自然地形은 소위 風水의 山水環抱, 水口關鎖, 山水逆勢와 일치되는 것으로 風水의 理論이 現代의 聚落立地의 觀點에서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다는 좋은 근거가 되는 實例이다.

또 한 가지는 無學과 鄭道傳과의 國都坐向에 대한 論爭이다. 51)

無學은 酉坐卯向을 주장했고 鄭道傳은 古來로 君主가 南面을 向해야 한다는 근거로 子坐午向을 고집하여 결국 鄭道傳의 意見대로 서울의 坐向은 決定되었다.

鄭道傳의 坐向은 北岳을 主山으로 하는 것으로써 위에 說明한 바와 같고, 無學의 坐向은

47) 李丙燾, 前掲書, pp. 403-408.

48) 여기서의 逆은 國城風水에서의 逆과는 달리 山脈水向의 흐름이 서로 反對로 向하고 있음을 뜻함.

49) 漢江은 西進, 청계천은 東進함.

50) 權赫在, 1974, 地形學原論, 法文社, 서울, pp. 56-58.

51) 村山智順, 前掲書, pp. 697-699.

仁旺山을 主山으로 하여 南山과 北岳을 左右 龍虎로 하는 것이다.

無學이 義湘大師의 山水秘記에 의하여 그와 같은 坐向을 내세웠다고 하나 믿기 어려운 기록이라 생각된다. 實錄에 남아있는 無學의 言行은 매우 現實적이었던듯 한데, 例를 들면 太祖가 漢陽의 地勢를 물었을때도 “此地는 四面이 높고 中央이 平坦하여 城邑에 適合하다고 생각되나 衆議에 좃아서 決定하소서” 한 점 등으로 미루어 그런 그가 鄭道傳과 論爭을 벌이며 山水秘記를 引用했으리라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여겨진다.

다만 文王八卦方位에 의해 볼때 子午는 坎, 離에 해당되고 酉卯는 兌, 震에 해당되어⁵²⁾ 六十四卦로 본 鄭道傳의 坐向은 火水未濟(未濟)가 되고 無學의 坐向은 雷澤歸妹(歸妹)가 되어 卦爻辭로 볼 때에는 鄭道傳의 坐向論이 우세하지 않았을까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原文 象日에는 澤上有雷歸妹 君子以慎辨物居方이 鄭道傳이라,⁵³⁾ 術法的 立場에서는 무척 재미있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이는 本考의 범위 밖의 일이다.

서울의 坐向이 無學의 주장대로 仁旺山을 主山으로 하고 東쪽을 바라보는 形勢를 취했다면 現在의 서울과는 큰 差異를 나타냈을 것이다. 또한 環境知賞(environmental perception)의 側面에서도 百姓들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都市 中心의 核心의인 建物인 王宮의 方向이 都市의 道路網, 發展方向 등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큰 것이다. 불행히 現在 筆者의 識見과 與件으로는 分析하기에 힘겨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 研究方向만을 提示하는데 그치고자 한다.

(4) 住宅과 陰宅의 例

現在에 알려진 風水는 대부분 이 陰宅 즉 墓地 相占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本考의 研究範

圍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陰宅風水를 聚落立地的 立場에서 살펴본다는 것은 거의 不可能한 일이기 때문에, 이 章에서는 現在 出版되어 있는 몇 가지의 術書中 共通되는 原則 部分만을 취급하였다.

最近에 나온 風水術書의 序文을 보면 과거의 風水目的과 같지 않은 면, 즉 後孫 發福을 두드러지게 나타내지 않은 특색이 있다. 이것은 물론 非合理的이라 생각되는 乘生氣를 피하고 孝에 目的을 集中시킴으로써 일어난 一種의 風水近代化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術書의 內容까지 近代化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미루어, 風水의 基本的 目的인 發福에의 염원은 그대로 남아 있는 듯 하다.

또 한 가지는 利己의 욕심에서 一身의 유해를 편히 安住해보려는 점도 없지는 않은 것 같다.

風水地理學研究 序에서 崔 禹石은 “人間의 高 尙은 흙이다. 人 間은 누 구나 壯 麗 한 山 川의 景 慨를 탐 한다. 옛 말에 죽 어 무 덤을 백 년 보 전 하 기 어 렵 다 고 했 다. 겉 으로 나 타 난 墓 墳 自 體에 만 뜻 이 있 는 것 이 아 니 라 山 의 永 遠 한 氣 像 과 精 氣에 同 化 한 다 는 人 間의 希 願이 風 水 學을 이 룩 하 게 된 것 이 라 고 생 각 할 수 도 있 다. 살 아 서 도 嚴 肅 한 山 의 精 氣를 自 己 몸 에 吸 氣 하 려 던 道 人 賢 者는 죽 어 흙 으로 돌 아 가 어 머 니의 품 속 에 안 기 는 듯 따 사 로 움 마 저 느 낄 다” 고 했 다.⁵⁴⁾

이러한 利己의 風水觀은 徐氏의 人子須知 譯書 序에서도 나타난다. 韓 松溪는 “大地위 아무데나 自己 肉身을 묻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는 肉身에 대한 死者의 미련 때문 만도 아닐 것이요, 또 부질없는 死後의 虛勢때문은 더욱 아닐 것이다. 누군들 죽어서 개굴창에다 肉身을 덩굴게 하고 싶을 것이며, 뉘라서 죽은 뒤 肉身을 불사르고 싶을 것이라”, 했고⁵⁵⁾ 孝를 追求한다고 하더라도 家庭과 後孫을 尊 위 하 여,⁵⁶⁾ 陽基風水와는 다른 樣 狀을 보 여 주

52) 原本集註 周易(全), 1976, 明文堂, 서울, p. 6.

53) 周易, 前掲書, p. 33, p. 349.

54) 黃日淳, 1963, 『地理學概要』, 世昌書館, 서울, pp. 4-5.

55) 韓松溪, 前掲書 序文.

56) 金明濟, 1971, 『地理八十八向 眞訣』, 서울, pp. 5-7.

고 있다.

그러나 그 內容上의 原則에는 變함이 없어 人子須知 葬法要綱에 의하면

1. 屍身을 편안하게 모셔야 한다.
2. 屍身을 오래 두지 못한다.
3. 先祖墓에 가까이 葬事하지 말라.
4. 破舊터에 쓰지 말라.
5. 無故한 改葬을 하지 말라.
6. 반드시 大地를 求하려 하지 말 것.
7. 古人의 格式을 따르라.
8. 賢明한 地師를 求하라.
9. 蔭德을 닦아야 吉地를 얻는다. 等 比較的

現實的인 점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⁷⁾ 程子가 改葬할 수 있는 근거로 내세운 다섯가지 事項도 마찬가지로 現實的인데, 첫째 장차 道路가 될 염려가 있는 경우, 둘째 墓 부근에 城을 쌓거나 家屋을 신축할 일이 있을 경우, 셋째 개울이 되거나 구멍이 나거나 무너질 염려가 있을 경우, 넷째 勢力家에게 占領당할 염려가 있을 경우, 다섯째 밭을 개간하게 된 경우 등으로 術法의 性格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陰宅風水에 있어서도 現代的 造영이 可能한 部分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風水의 科學性을 주장한 術師 黃日淳의 意見을 보면 재미있는 점이 散見된다. 그 하나가 逃屍와 生屍의 例이다.

逃屍란 屍身이 最初의 매장지에서 이탈하여 없어져 버리는 것을 말한다. 이는 地層이 褶曲等에 의하여 傾斜진 곳에 土壤이 덮여 原地層面을 덮은 곳에서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즉 地層面 위 土壤層이 mass-movement를 일으키는 경우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墓地가 傾斜地에 位置하고 부토질인데다 地上에는 樹木과 岩石이 치밀하여 表皮가 단단히 組織된 곳인 경우, 비가 오면 물이 山의 傾斜面下部로 빠지면서 地層과 地表面사이에 洞空을

만들게 되고 그 굴을 따라 관이 흘러가 버리게 된다. 이를 逃屍라 하며 그를 막기 위한 方法이 風水術法上있기는 하지만 非科學的인 것이라 省略한다.

生屍는 埋葬한지 오래된 屍身이 埋葬當時와 다름없이 原狀態를 보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도 토양의 화학 성분, 木官의 진공 상태 여부, 地下의 溫度 等에 의하여 科學的 說明은 가능하다.⁵⁸⁾

다만 이러한 穴을 찾아내는 方法이 定穴法, 穴星의 體, 穴形四大格 等 陰陽五行說에서 추론된 것 들이기 때문에 그 方面의 研究가 따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地形的 立場에서의 설명은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그 中 地形學的 說明이 可能하고 陰宅과 住宅에 共通되는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合水의 原理가 있는데 이는 左右水(得을 말함)가 宅地의 前面에서 合流해야 한다는 原則이다. 만일 左나 右 한쪽에 치우쳐 合流되는 경우에는 합치는 두 河川이 균형을 잃고 側方 및 頭部浸蝕을 하여 宅地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

둘째 得水와 破水是 國都風水의 漢陽 水局과 同一한 說明이 적용되는 原理이다.

셋째 十字의 原理인데 이는 균형잡힌 자연 환경의 제공으로 安定感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環境知賞理論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環境衛生學에 있어서는 下水의 침투를 위하여 多孔性地質(porous soil)로 된 언덕(hill side)을 重視하고 있는데 이것은 下水를 버려도 곧 地下로 스며들어 惡臭發生과 모기 및 해충의 번식을 방지할 수 있는 利點이 있기 때문이다.⁵⁹⁾ 十字의 原理에 의하여 選定된 地點은 교차하는 두 개의 陵線이 합쳐지는 곳이므로 下水 처리에 있어서 매우 有利한 위치라 할 수 있다.

대체로 前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個別風水

57) 韓松溪, 前揭書, pp. 9-17.

58) 黃日淳, 前揭書, pp. 33-35

59) 權肅約外, 1976, 最新環境衛生學, 集賢社, 서울, p. 481.

의 경우는 지나치게 秘術的 性格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重要性은 認識하면서도 合理的 分析이 어려운 難點이 있다.

5. 要約 및 結言

墓地相占法으로 널리 알려진 風水는 원래 陽基風水를 포함하여 古來로부터 우리 나라의 土俗信仰으로서 우리의 土地觀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新羅末 高麗初 唐으로부터 風水의 學理가 수입되고 道誥에 의하여 土着的 土地觀과 結合 전파됨으로써 韓國風水는 시작되었다. 高麗太祖 王建은 風水思想을 신봉하여 遺訓으로까지 風水의 制度的 保障을 마련해 줌으로써 以後 風水의 滿開期를 맞을 수 있었으며, 朝鮮의 太祖 李成桂 또한 國都 冀都過程에서 無學, 河崙, 權仲和, 鄭道傳等 風水에 一家를 가진 諸臣의 意見을 좇음으로써 風水의 영향력을 과시하였다.

朝鮮初期 四代 世宗期에 이르러 漢陽冀都의 細部事項까지가 完結됨에 따라 國都風水는 表面上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러나, 儒敎의 孝와 결부된 陰宅風水는 朝鮮朝에 들어와서도 계속하여 班常을 불문하고 國民의 風習속에 남아, 現在에 이르기까지 많은 遺習을 남겨놓고 있다.

青烏經, 錦囊經等 代表的인 風水 術書에 나타난 風水의 目的은 한마디로 地力에 의탁하여 人生의 幸福을 求하자는데 있는 것 같다.

地力이란 地中을 흘러다니는 生氣를 말하는데, 그 生氣가 融結된 곳에 墓地나 住宅 혹은 聚落을 營造하면 後孫이나 居住者가 福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生氣의 本體에 관한 것은 本考의 범위 밖의 것이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다만 地中 生氣가 萬物의 化生力을 갖고 있으므로 生物이 자란다는 思孝方式이 밀바탕에 깔려있음은 짐작해볼 수 있는 일이다.

生氣融結處를 찾아내는 方法은 風水家에 따라 差異가 있다. 특히 個別風水 즉 住宅이나 陰宅風水에 있어서는 實地形과 동떨어진 非合理的인 術法이 많이 행하여졌다. 그 부분도 地理學

的 조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本考에서는 그 첫 단계로 國都風水에만 分析을 집중하였다. 細部的인 定穴上的 術法은 次後의 研究로 미루었다.

國都風水의 核心이라 할 수 있는 山水環抱, 水口關鎖, 內外水流逆勢는 漢陽의 地形을 例로 하여 比較한 결과 매우 合理的이고 타당성이 있다는 結論을 얻었다. 즉 風水原則에 合當한 地形은 聚落立地論의 側面에서 보더라도 소위 明堂인 都城內가 自然力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는 바람직한 場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風水의 基本思想이라 할 수 있는 陰陽五行說이 地理學의 觀點에서 論究된 바가 없기 때문에 陰宅이나 都邑風水의 個別的인 分析은 다음의 研究로 미룰 수밖에 없었던 아쉬움이 있다.

各 地域에 남아 있는 風水傳說是 地誌的인 國土 研究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해당 地域의 立地分析에 있어서도 資料로서의 價値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個別地域別 都邑風水의 case study도 필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陰宅의 경우, 生氣融結處에 祖先의 유해를 모심으로써 後孫發福이 된다는 思考는 확실히 근거없는 얘기이다. 그러나, 住宅과 더불어, 風水目的을 도외시한 陰宅의 定穴法은 그것이 住宅의 基地 選定에 局限하여 利用될 경우, 環境知覺上 긍정적인 면도 없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끝으로 湖南地方의 山水逆勢, 反弓水形地勢는 北쪽인 京畿, 忠淸地方을 主體로 본다면 反弓水가 되지만 車嶺 및 錦江以南을 主體로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山水環抱가 되어, 風水가 當時爲政者들의 牽強附會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도 있다. 그런데 嶺, 湖南 山勢比較는 優劣을 따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最近의 地質調査결과가 兩地域의 差異를 밝혀주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르는 環境的 영향까지도 研究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風水研究가 주로 歷史的 觀點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風水 自體의 實際 內容은 術法書나 傳說속에서 찾아볼 수 있을 뿐

이다. 또한 風水가 墓地相占術로 代表되어 왔기 때문에 非合理的인 미신으로 여겨져 왔던 것도 사실이다.

現在까지의 알려진 바로는 風水가 대체로 科學的 說明이 不可能한 部分으로 構成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本考에서 그 合理的인 部

分の 闡明이나마 밝히기는 하였지만, 실사 그것이 非合理的인 것이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우리民族의 土地觀을 이루던 思想이었으므로 계속적인 地理學的 接近이 이루어져, 國土空間秩序 究明의 重要資料가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A Geographical Study of "Poong-Soo," a Korean Traditional Geomancy

Chang-Jo Choi
Young-Han Park

Summary :

"Poong-Soo" is a kind of Korean traditional geomancies. Literally it means wind and water, but in a strict sense its connotations are very profound.

Koreans selected building sites and burial grounds from certain ideas of geomancial point of view. Also they chose the reasonable place for the capital city like that. In that case they called the ideas "Poong-Soo(風水).

It originates in the ancient times, but it prevailed at about one thousand and one hundred years ago when the theoretical "Poong-Soo" was introduced into Korea from China. Above all Wang-Gun, the founder of the Koryo-Dynasty (AD. 918-1392), embraced the thought of "Poong-Soo" and enforced it to his successors, so it was at its full bloom time during that dynasty. In the early stage of the following Choseun-Dynasty (1392-1910) the kings also believed in that thought. They acted upon advices of the theorists and as a matter of fact the capital site was decided in Seoul through the theoretical discussion of "Poong-Soo."

We divide it in two kinds. One is the "Eum-Taek Poong-Soo(陰宅風水)", the selection of burial grounds and the "Yang-Taek Poong-Soo(陽宅風水)", the selection of building sites and settlement location is the other. As the kingdom had been stabilized, "Yang-Taek Poong-Soo" was disappeared gradually, but "Eum-Taek Poong-Soo" still remains in the Korean national customs.

The purpose of "Poong-Soo" is to look for human felicity by the help of "Ji-Ryuk(地力)", a composite ground forces. It is thought that "Ji-Ryuk" gives good luck to people who select the favourable sites for their building, settlements, capital or ancestor's burial grounds.

Ancient people thought grounds as a maternity. They gained almost all of their necessities of life from the grounds. When their locations were good enough, their productivity would rise. And they regarded the influences of grounds as a decisive fact. In this, magic methods of grounds selection would be added and they be modified. Theoretical "Poong-Soo" was come out through those processes.

The author limited his consideration only to the "Yang-Taek Poong-Soo", especially the case of the capital selection, Seoul. According to the theory, the site of capital city should be located there, in which it is surrounded with mountains and rivers (山水環抱), free from the damage of the flood (水口關鎖), and where the main sewerage channel meets the river counter-currently (內外水流逆勢).

Just Seoul is in such cases. The east, west and north of Seoul are surrounded by Mt. Nak-San, Mt. In-Wang and Mt. Book-Ak. The main sewerage system, Chung-Gae-Chun, unite with River Han-Gang at the point-bar side of the river counter-currently.

As a result of such environments, Seoul is somewhat screened from the cold north-west seasonal wind in winter and is more or less preserved by the damage of the summer flood. In this

respect, the author thought that superstitious "Poong-Soo" has a certain value to be discussed from the modern geographic angle. This thesis is only the first step towards better studies and also aims at the arrangement of the theory of

"Poong-Soo" as an object.

In conclusion,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Poong (風) signifies weather or climate and Soo (水) means water condition. That is a kind of traditional location theory in Korea.